

라오스 2019: 메콩 내륙국가에서 연계국가로의 전환*

이요한**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 내 학문적 소외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라오스의 2019년 정치·경제·외교적 변화를 살펴보고 한국과 라오스의 협력 현황을 정리하였다. 라오스 국내 정치의 변화는 미미하였으나 반(反)정부 인사의 실종과 소수 행동가의 지속적인 저항을 다루었으며 메콩 주변국과의 국경협력을 강화한 것과 러시아와의 첫 공동군사훈련이 갖는 의의에 관해 서술했다.

라오스는 메콩 유역의 26%, 메콩 유수량의 35%를 차지하는 지정학적으로 중심이 되는 국가이다. 최근 메콩 협력이 공식화되고 GMS(Greater Mekong Subregion)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연계성이 강화되자 라오스의 지정학적 가치는 더욱 높아졌다. 특히 국내적으로 본류의 제1호, 2호 댐인 싸야부리 댐과 돈사홍 댐이 완공되고 전력생산이 시작된 전환이 되는 한 해였다. 한국 역시 메콩 협력에 있어서 라오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19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라오스 방문 때 한-메콩 협력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2019년 11월 메콩 정상회의를 통해서 한-메콩 간의 협력 관계를 격상시킴으로써 한국과 라오스의 협력 역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라오스와의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개발과 환경의 균형이다. 메콩강은 아마존강에 이어 세계 2위의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 국가·기업·국제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A2A01035517)

** 한국외대, 태국어과 강사, leeyohan@hufs.ac.kr

기구의 시각은 개발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데 치우쳐 있다. 2019년 메콩강 수위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환경파괴로 인한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2018년 라오스에서 발생한 수력댐 붕괴로 인해 개발 위주 사업의 폐해와 부작용을 직접 경험한 바 있다. 따라서 개발과 경제 논리에 편향된 협력보다는 메콩강의 생태계 관리와 보호,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공유 문제 등에 관해 관심을 두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라오스, 싸야부리 댐, 돈사홍 댐, 수력발전, 경제성장, 한-메콩 비전, 한-메콩 정상회의

I. 들어가며

라오스는 메콩 유역의 26%, 메콩 유수량의 35%를 차지하여 어느 유역국보다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이다. 라오스는 5개국과 국경을 공유하는 내륙(land-lock)국가로서 그동안의 고립을 떨쳐버리고 메콩 허브의 중심이 되는 연계(land-link)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메콩의 개별적·다자적 협력 거버넌스가 공식화되고 GMS(Greater Mekong Subregion)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연계성이 강화되자 라오스의 역할과 가치는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한국 역시 메콩 협력 구도에서 라오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19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라오스 방문 당시 ‘한-메콩 협력(Mekong-ROK Cooperation)’을 공식 선언했다. 이후 한-메콩 협력 수준을 기존의 장관급(ministers meeting) 관계에서 2019년 11월 제1차 한국·메콩 정상회의(Mekong-ROK Summit)로 격상시킴으로써 한국·라오스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한국 내 학문적 소외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라오스의 2019년 정치·경제·외교적 변화를 살펴보고 한국과 라오스의 협력 상황을 정리하였다. 라오스 정치는 라오인민당(LPRP, Lao People's

Revolutionary Party) 체제로 공고화되어있어 2019년에 정치 지형에 영향을 줄 이슈가 많지 않았으나 반정부 인사의 실종으로 인한 논란과 소수 행동가의 지속적인 저항을 소개했다. 또한, 외교 부문에서 메콩 주변국과의 국경협력을 강화한 것과 러시아와의 첫 공동군사 훈련이 갖는 의의에 관해 서술했다. 경제 분야는 경제성장률과 무역과 재정 분야의 현황을 정리하였으며, 인프라 분야는 메콩 물류의 허브로 도약하고자 하는 라오스 정부의 노력과 이로 인한 부작용을 살펴보았다. 특히 2019년은 메콩 본류의 싸야부리(Xayaburi) 댐과 돈사홍(Don Sahong) 댐이 완공되어 개발과 환경보호의 해묵은 논쟁이 재연되었다.

2019년 한국·라오스 양국 관계는 두 차례나 정상회의를 개최한 이례적인 한 해였다. 2019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라오스 국빈방문이 있었으며, 이후 11월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에 통룬 시술릿(Thongloun Sisoulith) 총리가 참석하면서 한·라오스 정상회의를 재차 개최했다. 한국과 메콩 협력의 수준이 점차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라오스를 메콩 협력의 핵심 국가라고 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한·라오스 비엔티안 정상회의에서 ‘한·메콩 비전(ROK-Mekong Vision)’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험을 공유하는 번영·지속가능한 번영·동아시아 평화와 상생번영’을 제시했다. 11월 부산에서 개최한 한·메콩 정상회의에서는 ‘한·메콩 공동번영을 위한 미래 협력 방향’이라는 주제로 7개의 우선 협력 분야를 선정했다. 이와 같은 한·라오스 개별 또는 공동 정상회의를 통해 양국 간의 교육·문화 분야의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본 논문은 양국의 협력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한 향후 과제와 전망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II. 라오스 정치경제

1. 권위주의 체제와 지속적인 저항

라오스는 1991년 제정된 헌법을 통해 라오인민혁명당(LPRP) 중앙위원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정치국원이 대통령·총리·장관과 국회의장을 겸임하는 일원화된 집단지도체제이다. 라오인민혁명당은 5년마다 전당대회를 통해 국가와 당의 리더십을 선출하며, 현 정부는 2016년 1월에 선출한 지도부를 유지하고 있다. 차기 지도부가 선출되는 2021년 이전까지는 라오스 정치나 지도체제의 연속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라오스 정부를 비난하던 반체제인사의 실종은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온라인 매체를 통해 라오스 정부를 비난해오던 오드 사야봉(Od Sayavong, 34세)이 2019년 8월 26일 태국 방콕에서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반(反)정부 활동으로 태국으로 추방된바 있는 오드 사야봉은 ‘자유 라오(Free Lao)’의 회원으로, 태국 정부는 2017년부터 라오스 정부를 비난하는 요주의 인사로 분류한 바 있다. 그는 2017년 4월 태국에서 거주하던 라오스 정부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구금당한 3명의 라오스 노동자를 석방하라고 요구했으며, 2019년 6월 태국에서 아세안정상회의가 열리던 시기에 라오스를 비난하는 영상을 온라인에 게재했다. 그는 영상에서 정부가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는 토지를 거주민으로부터 약탈하는 것과 2018년 세남노이-세피아 댐 붕괴로 피해를 본 주민이 정부의 무관심 속에 열악하게 살아가는 것을 비난해왔다(Bangkok Post 2019/09/07). 오드 사야봉이 실종된 이래 2020년 3월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당시 그는 2019년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릴 아세안국민포럼(ASEAN’s People Forum)에 참석하여 라오스 정부를 비판할 예정이었다. 오드 사야봉 실종

사건은 2012년 12월 실종된 솜밭(Sombat)에 이어 반체제인사 실종이 재현한 것으로, 솜밭은 실종 이전에 대규모 토지협상에서 불이익을 받는 라오스 농민을 대변하고 있었다(BBC 2013/01/17).

인권 단체들은 오드 사야봉 실종도 라오스 정부의 반정부 인사에 대한 탄압이라고 비난했다.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라오인권운동(LMHR, Lao Movement for Human Rights)은 태국 정부에 오드 사야봉 실종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했다(Reuter 2019/09/06). 태국 당국자는 이번 실종 사건에 관해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라오인권운동은 이번 실종에 라오스 정부를 비롯한 외부 세력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The Guardian 2019/09/06).

그럼에도 라오스 소수 활동가는 라오스 정부에 대한 저항을 지속하였다. 싸야부리(Houayheung Xayabouly)는 페이스북 생방송에서 2018년 남부지방에서 발생한 댐 붕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가 2019년 9월 체포되었다. 싸야부리는 국가와 정부를 전복시키려 했다는 죄목으로 5년형을 선고받았다(Hutt 2019). 2019년 11월 11일 비엔티안에서 발생한 인권 시위 역시 권위주의 체제의 라오스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라오국민동맹(Lao National Unity)이라는 지하조직이 계획한 인권 시위는 라오스 정부에 ① 인권의 존중과 언론의 자유 ② 토지의 강제수용과 댐 건설의 금지를 요구했다(Souksavanh 2019/11/15). 라오스 경찰은 시위자 중 8명을 석방했지만, 12명의 시위 참여자는 아직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다(Hutt 2019).

라오스 내 반정부 활동이 비록 소수이지만 지속하는 것은 라오스 권위주의 체제 속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라오스의 많은 국민이 반정부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정부의 부정부패와 무능함에 대해 심정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이다. 2016년 취임한 통룬 총리는 라오스의 부정부패 문제를 해

소하겠다고 개혁을 시도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Hunt 2019). 2018년 발생한 남부 댐의 붕괴 문제, 2019년 발생한 최악의 가뭄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능한 대응이 많은 국민에게 불만을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2021년 현재의 지도부가 교체될 예정인데 새로운 지도부가 근본적인 개혁과 부정부패 문제의 해결을 끌어내지 못한다면 라오스 정부는 지속적인 저항을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 외교적 외연의 확장

2019년 라오스의 외교는 주변국과의 우호와 협력을 견고히 하는데 집중했다. 베트남, 캄보디아와 더불어 ‘삼각개발(Triangle Development)’을 지속하기로 했다(Vietnam Plus 2019/08/17). 3국은 아세안공동체의 진전을 위해 국경 중심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삼각개발을 위한 대상으로 13개 지역이 선정되어 베트남 기업은 116개 프로젝트에 36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3국의 관광개발 계획 수립을 통해 각국의 관광지역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국경 지역의 긴장감을 완화하기 위해 라오스는 캄보디아와 지난 2년간 대치 중이던 미분계(未分界) 지역에서 군대를 철수하기로 합의했다(Xin hua 2019/08/24).

라오스는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주요국과의 관계도 강화하였다. 중국은 2013년 일대일로(BRI,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정책을 천명한 이래 라오스 인프라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라오스 분냥 보라췌(Bounnhang Vorachit) 대통령은 2019년 4월 중국에서 개최한 2차 국제협력 일대일로 포럼(Second Belt and Road Foru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에 참석했다. 이 포럼에서 시진핑(Xi Jinping) 주석과 함께 중국-라오스 공동체 행동계획(China-

Laos Community Action Plan)에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현재 건설 중인 쿤밍(중국)-비엔티안(라오스) 철도 건설을 통해 경제회랑을 구축하기로 하는 등 중국-라오스는 ‘황금시대(golden time)’라는 평가를 받았다(Xinhua 2019/04/24).

일본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과 “도쿄 전략 2018(Tokyo Strategy 2018)”이라는 기조 아래 ‘질적인 인프라 개발(Quality infrastructure development)’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2019년을 “메콩-일본 방문의 해(Mekong-Japan Exchange Year)”라고 표방하면서 라오스를 포함한 메콩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2019년 5월 라오스를 방문한 고노 다로(河野 太郎) 일본 외상은 양국의 경제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라오스인의 복수 비자(multiple visa)를 연장하기로 약속했다. 라오스 역시 재정(財政) 안정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일본과의 협력을 환영하였다.

2019년 12월 실시된 라오스의 러시아군과의 공동 군사훈련 또한 주목할 사안이다. 라오스는 전통적으로 베트남 이외 국가와의 군사협력은 미미한 편이었다. 12월 19일 실시한 라오스·러시아 공동훈련은 약 500명 규모로 국제적 테러 방지를 목표로 시행했다. 이번 공동훈련은 비록 소규모지만 라오스-러시아 양국 간의 첫 공동훈련으로 러시아가 라오스를 동남아시아의 군사협력에 첫 주자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Xuequan 2019/12/03). 러시아는 공동 군사훈련에서 라오스에 러시아 무기를 제공하였으며, 라오스군(軍) 간부가 러시아사관학교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무엇보다 라오스는 2018년 12월 말 러시아제(製) T-72B 탱크와 BRMD-2M 장갑차 도입을 계약하였으며, YAK 전투기도 도입할 예정이다(Prashanth 2019/01/03). 라오스의 대 러시아 군사협력의 확장은 베트남 또는 아세안 중심의 안보의존에서 확장된 행보로 앞으로의 외교 행보에 어

편 영향을 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경제성장의 지속

라오스 정부는 2020년의 경제발전을 위해 건전한 재정과 금융 정책을 운용하고 생산성과 서비스업의 강화, 수출의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더불어 도시와 지방의 개발격차를 줄이는 것을 2020년의 주요 의제로 채택했다(Phouhonesy 2019/11/14).

라오스의 2019년 GDP 성장률은 5.0%로 최근 10년 이래 최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애초 라오스 정부가 올해 목표한 최소 경제성장률 6.7%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결과이다. 라오스 정부는 글로벌 경기침체, 40년 내 최악의 가뭄과 9월의 남부 지방의 홍수 등을 2019년 경제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ADB 2020, 276). 그러나 <표 1>과 같이 2019년 명목 GDP가 200억 달러에 도달했고, 1인당 국민소득도 3,000달러에 육박한 점은 라오스의 경제적 성과라 평가할 수 있다. 2019년 라오스의 제조업 부문 성장률은 전력생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철도, 고속도로, 특별경제 지대와 같은 대형인프라 프로젝트에 힘입어 성장세를 유지했다(ADB 2020, 276).

<표 1> 라오스 2018-2019년 경제지표

	명목 GDP	1인당 GDP	실질성장률
2018년	183억 달러	2,705달러	6.2%
2019년	200억 달러	2,918달러	5.0%

자료: ADB(2020)

통룬 총리는 2020년 경제성장률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문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라오스 내 엄격한 법(法) 집행으로 불법 무역과 마약 밀수의 감소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통룬 총리는 라오스 경제가 지속가능한 경제로 변모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재정적자가 GDP 대비 6%에서 2018년 4%로 감소한 것과 정부의 조세 수입은 2016년 2조 1,000억 킵(kip)에서 2018년 2조 6,200억 킵(kip)으로 증가했다고 언급했다(Phouhonesy 2019/11/14). 라오스 정부는 2019년 민간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부채를 조정하는 한편 중소기업 부문에만 320억 킵 규모의 자금도 투입했다. 또한, 라오스는 기존의 전력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운영 비용 감소를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서비스 부문의 성장률은 중국 관광객의 라오스 유입이 증가하면서 6.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 수출의 증가로 2019년 라오스의 총 수출은 12%, 총 수입은 13.5% 증가하였다(ADB 2020). 외화 보유액은 전년도 10억 달러에서 11억 달러로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라오스 총 수입액의 1.3개월만 충당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라오스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공무원의 임금을 동결하였으며 2019년 신규 공무원 채용 규모도 예년의 반(1,500명)으로 감소했다. 라오스는 2025년까지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감소시키기 위해 2019년 5천만 달러 이상이 소요되는 공공투자 프로젝트는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라오스의 공공부채는 GDP의 65.9%를 차지하여 라오스 정부가 상한선으로 설정했던 60%를 돌파함에 따라 부채 위험이 '보통'에서 '높음'으로 격상했다(KOTRA 2019).

라오스는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19년 7월부터 전자비자 발급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는 시범서비스 단계로 왓파이(비엔티안) 국제공항과 농카이(Nong Khai) 국경의 라오-타이 우정의 다리

검문소를 통해 입국하는 여행자에게만 발급된다. 앞으로 우정의 다리 2호(사바나켓), 4호(보깨오), 루앙프라방 국제공항, 팍세 국제공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4. 인프라 확대의 명암

라오스는 대륙부 동남아의 중앙에 위치하면서 5개국과 접경한 지리적 요충지이다. 그럼에도 라오스의 교통 인프라는 매우 열악했기에 아세안 물류 흐름의 맥을 끊는 상황이었다. 라오스에 현재까지 고속도로가 존재하지 않고 철도 역시 비엔티안에서 태국 국경까지 인접한 짧은 노선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중국은 아세안과의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철도를 비롯한 물류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했고, ‘일대일로’의 일환으로 라오스에 철도를 부설하기로 했다. 라오스로서도 내륙국으로서의 물류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지정학적 연계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환영했다(Eugene 2019/04/29).

본 프로젝트의 규모는 60억 달러에 이르며 중국의 쿤밍(昆明)부터 비엔티안에 이르는 420km에 철도를 놓는 라오스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다. 건설비용의 70%는 중국이, 30%는 라오스가 부담한다. 하지만 자금의 대부분과 기술은 중국이 제공하며 라오스의 역할은 철도 용지 제공과 행정적인 지원에 그치기 때문에 중국이 본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철도그룹(China Railway Group)이 본 프로젝트의 주관 기관으로 202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한다(Skylar 2019/06/11). 2019년 6월 현재 라오스-중국 철도 프로젝트는 총 167개의 교량 중 47개를 완공했고, 72개의 터널 중 53개를 완공하는 등 약 60%의 공정률을 기록하며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Skylar 2019/06/11; Xinhua 2019/05/21).

2019년 5월 철도 부설의 중요한 부분이던 라오스 루앙프라방의 메콩강을 가로지르는 첫 번째 교량이 완공되었다. 본 교량은 약 1.5km의 길이로서 라오스 북부의 220km 건설 경로 중 가장 어려운 부분에 해당한다. 본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승객용 열차는 시속 160km에 이르며, 화물용 열차는 시속 120km로 운행할 예정이다(Skylar 2019/06/11; Xinhua 2019/08/24). 중국과 라오스를 잇는 철도가 2021년 완공되면 양국의 교역 특히 농업부문의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00년부터 라오스에 대규모 농업투자를 해왔으며, 2016년 8,000톤의 쌀 수입을 허용했다. 2019년 4월은 라오스 산(産) 소 50만 마리를 수입하기로 합의했으며, 중국 민간 기업이 라오스 북부 루앙남타(Luang Namtha)에 소 사육·검역 센터에 약 1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건설부지에 거주하는 현지 주민들에 대한 보상(총 2억 5천만 달러 규모)과 이주 문제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로 인해 총 3,382헥타르에 걸친 방대한 지역의 거주민들을 이주시켜야 하지만 이들에 대한 보상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루앙프라방 이주민은 “나와 우리 가족은 토지와 주택에 대한 어떠한 지원과 보상을 받은 바 없다. 우리 가족은 조그만 상점을 열어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심지어 루앙프라방에서 파인애플 농장을 경영하면서 많은 수익을 올리며 살아가던 한 이주민 가족이 정부의 보상이 없어 방콕까지 일하러 간 예도 있었다. 비엔티안의 거주자는 “정부의 보상금이 이미 지방행정기관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왜 거주민은 아직 전달받지 못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의구심을 제기했다(Eugene 2019/04/29). 방비엔의 거주자는 “라오스 정부는 우리 가족에게 떠나라고 이야기했지만, 보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라며 불안감을 나타냈다(Shawn 2018/08/18).

라오스 정부는 대외적으로 보상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지만, 비엔티안 주를 비롯한 4개 주 13개 군(district)에 있는 4,411세대 중 불과 230세대만이 보상을 받았다. 라오스 정부는 2020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지역 이주민에 보상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심지어 이주를 거부하는 거주민들과 중국인 노동자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주민의 반발이 거세지기도 했다(Eugene 2019/04/29).

대규모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노동력 대부분을 라오스 현지인이 아닌 중국인 노동력에 의존하는 구조도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약 2만 2천 명으로 추산되는 철도 건설 노동자 수요 중 라오스 측은 약 7,000명의 채용을 기대하였으나 2019년 6월 현재 채용된 라오스인은 2,000명에 불과하다. 반면 중국인 채용 규모는 2만 명에 달해 라오스인의 10배에 이른다(Skylar 2019/04/29). 중국은 철도 프로젝트를 통해 라오스 현지 기술 인력을 1천 명 이상 육성한다는 약속을 하였지만, 현재까지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Zhang 외 2019). 게다가 건설 현장 주변의 관련 식당과 상점 또한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실정이다(Peter 2017/06/24). 라타마니(Lattamany) 공공사업 및 교통부(Ministry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 차관은 “우리(라오스) 정부는 가능한 현지 인력 채용을 원하고 있지만, 철도 건설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 중국 인력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이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Marimi 2017/10/06).

대형인프라 건설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도 불거졌다.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맑은 물로 유명한 관광지 방비엥 인근에서 2018년 11월 검은색의 오염물질이 유출됨에 따라 거주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Surya 2019). 이 오염물질이 철도 부설을 위한 터널 공사 현장에서 나온 것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공무원들은 이를 해결

하는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Roseaneen 2018/11/14).

라오스는 베트남과의 철도 연결에도 노력하고 있다. 2019년 10월 15일 라오스 정부와 페트로 무역(Petro Trade)은 라오스 캄무안(Khammuan)주와 베트남 하띤(Ha Thin)의 붕안(Vung Ang) 항구를 잇는 철도 건설 MOU를 체결했다(Vietnam National Agency 2019/10/07). 철도 길이는 240km이며 시속 90~120km의 속도가 예정되며 2021년 착공하여 2024년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라오스에 2019년은 메콩 분류 댐의 첫 완공과 운영이라는 역사적인 해로 남을 것이다. 싸야부리(Xayaburi) 댐은 2012년 건설을 시작하여 약 44억 달러의 자금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싸야부리 댐의 전력생산량은 1,285MW로 한국의 최대 수력댐인 충주댐의 4배에 이르며, 전력생산의 95%를 태국에 수출할 예정이다. 제2의 분류 댐인 돈사홍(Don Sahong) 댐은 2016년부터 건설을 시작하여 총 5억 달러의 자금이 투입되었으며, 전력생산량은 260MW로 태국과 캄보디아로 수출할 예정이다. 2019년 10월부터 4개의 전력생산기 중 1개를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12월부터 전력을 본격 생산하고 있다(New Strait Times 2019/12/24).

2019년 라오스 사회의 최대 이슈는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메콩강 수위 논란이다. 라오스 정부는 메콩강 수위 저하로 인해 가정의 식수와 농업·사업용 용수가 크게 부족했다고 발표했다(High 2020, 147). 2019년 강수량이 평균 강수량의 70% 미만에 그친 것이 메콩강의 수위를 낮아지게 한 결정적 요인이지만 메콩강 본류와 지류에 건립되고 있는 댐에 대한 비난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The Thaiger 2019/07/28). 메콩 유역 거주민들은 지난 몇 년간 우기 기간에도 메콩강 수위가 낮아진 것을 거론하며 단지 2019년 강수량의 부족이 핵심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지적한다(High 2020, 148).

이와 같은 제약적 상황에 상황에도 불구하고 라오스 정부의 수력

발전과 전력 수출시장의 확대는 변함없이 추진되었다. 라오스는 태국에 연간 4,260MW의 전력을 수출하고 있으며 태국은 라오스의 최대 전력수입국이다. 라오스의 태국 전력 수출은 2020년까지 7,000MW, 2025년 9,000MW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Xuxin 2019/08/22). 라오스의 통론 총리는 2019년 9월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전력 계약을 체결했다(Yinglun 2019/11/11). 캄보디아는 향후 30년간 4단계에 걸쳐 최대 2,400MW의 전력을 라오스로부터 수입하기로 했다. 우선 2024년까지 300MW의 전력을 수입하기로 했고,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600MW의 전력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으며 2027년 이후 900MW를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Yinglun 2019/11/11). 라오스는 베트남에 현재 연간 300MW의 전력을 수출하고 있는데, 연간 전력수출량이 2020년까지 1,000MW, 2030년까지 5,000MW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Xuxin 2019/08/22). 이외에도 라오스는 태국을 통해 말레이시아에 연간 100MW를 수출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300MW의 전력을 수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Ⅲ. 한국과 라오스 관계

1. 두 번의 정상회의와 한·메콩 비전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1일부터 6일까지 태국·미얀마·라오스 3개 메콩 유역국을 방문했다. 문대통령은 취임 직후 신남방정책을 발표하면서 임기 내 아세안 10개 국가를 모두 방문하겠다는 약속했고, 라오스 방문을 마지막으로 이를 완료했다. 비엔티안에서 개최한 한·라 정상회의에서는 양국의 정치외교·무역 및 투자, 농업·에너지·인프라 개발 협력을 논의했다. 분당 라오스 대통령은

라오스가 최빈국을 벗어나기 위해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작년 아타푸(Attapeu) 주의 세피안-세남노이 댐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 이후 한국 정부의 지원과 관심에 감사를 표했다. 양국 정상은 회담 이후 ICT·산업 무역·농업·경제개발 분야 등 4개 분야의 MOU 체결해 서명했다(Vientiane Times 2019/09/06).

2019년 9월 5일 문 대통령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한-메콩 비전’을 발표했다. 라오스를 포함한 메콩 저개발 4개국은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으로 한국은 2017년까지 총 33억 달러를 공여하였으며, 한국 양자 ODA의 21%를 차지했다. 한·메콩 협력은 민간분야로도 확대되어 2013년 이래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ROK-Mekong Business Forum)’을 매년 개최해왔다. 비즈니스 포럼에는 한국과 메콩 기업 간 상담을 통해 중소기업 간 교류 증진에 이바지해왔다. 양국의 협력 관계가 시작된 이래 무역 규모와 인적교류는 크게 증가했다. 2022년 한국과 대 메콩 무역은 연간 250억 달러로 10대 교역 대상이 되며, 투자는 연간 10억 달러로 8대 해외 투자지역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다. 2019년 현재 한국은 대 라오스 투자국 중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광객 순위에서는 3위를 차지하고 있다(Prashanth 2019/09/11).

문 대통령이 한-메콩 비전을 발표했던 비엔티안의 메콩 강변은 2013~2015년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으로 정비한 한-메콩 협력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 자리에서 한국과 라오스 정상회담 직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5억 달러 규모를 지원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대 라오스 경제협력과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이 제시한 메콩 비전은 한국의 ‘한강의 기적(The Miracle of

Han River)'이 개도국 중심으로 구성된 국가들의 '메콩강의 기적(The Miracle of Mekong River)'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천명하고 있다. 메콩 비전에서는 크게 3가지 변영을 강조했다. 첫째 '경험을 공유하는 변영'이다. 한국은 짧은 기간에 개도국에서 산업화된 국가로 발전한 경험을 보유한 유일한 메콩 지원국이다. 특히 농촌 중심의 메콩 개도국에게 한국의 농촌 발전 모델을 공유할 수 있고, 메콩 국가가 양질의 교육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인적자원 중심의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갈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은 ICT를 포함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있어서 선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메콩 유역국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는 역량도 갖추고 있다.

둘째, '지속가능한 변영'이다. 메콩강은 남미에 있는 아마존강(Amazon River)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생태계의 다양성을 갖고 있다. 메콩강은 약 2만 종의 식물종, 1,200여 종의 조류, 850종의 어류, 430종의 포유류를 보유한 생태계의 보고(寶庫)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계속되는 댐 개발로 메콩강의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메콩강의 경제적 가치를 활용하기 위한 개발주의가 만연함에 따라 메콩의 환경적 가치는 빠른 속도로 잠식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기후변화와 강수량 감소의 영향으로 2019년 메콩강은 최근 40년간 가장 낮은 수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메콩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라오스 농·어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메콩의 환경적 중요성을 중심으로 무분별한 개발과 과도한 남용이 아닌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동아시아 평화와 상생변영'이다. 메콩 유역국은 아세안공동체의 출범을 통해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라오스를 포함한 메콩 유역국은 인프라 부족과 기존 아세안 회원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과의 개발격차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메콩 국가의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가 되고자 인프라 건설에 참여할 것을 선언했다. 이는 매년 1,000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인프라 시장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기도 하다.

2019년 11월 25~27일 부산에서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ASEAN-ROK Commemorative Summit)가 개최되는 동시에 한-메콩 정상회의(Mekong-ROK Summit)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메콩은 주요국의 협력 거버넌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이외에도 실질적인 한-메콩 경제 관계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이와 같은 한-메콩 협력의 격상은 적절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라오스 통룬 총리를 비롯한 메콩 정상은 ‘한·메콩 공동번영을 위한 미래 협력 방향’을 주제로 논의를 나누었다. 한·메콩 정상회의 이후 ‘사람·번영·평화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한강·메콩강 선언(Mekong-Han River Declaration for Establishing Partnership for Peace, Prosperity and Peace)’을 채택했다. 이 선언에서 우선 협력분야로 문화관광·인적자원개발·농촌개발·인프라·ICT·환경·비(非)전통안보협력 등 7개 분야를 선정했다. 기존의 한·메콩 개발계획에서 녹색성장과 수자원 관리가 환경으로 통합되고, 문화관광·비전통 안보협력 분야가 새롭게 추가되었다(Vientiane Times 2019/11/28).

2. 상호 무역·투자의 부진과 개발협력(ODA) 확대

한국과 라오스의 양 정부 차원에서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한국과 라오스의 경제관계 특히 무역과 투자 부분의 지표는 최근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우선 수출액을 살펴보면 2015

년 1억 7천만 달러로 정점을 찍은 후 2019년까지 5년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019년은 4,200만 달러로 2018년 8,400만 달러에 비해 절반에 불과하였다(<표 2>). 이는 201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최대 수출품이었던 중고(中古) 자동차의 수입을 라오스 정부가 금지조치를 함에 따라 이후 수년간 이를 대체할 만한 수출품을 발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9년 역시 승용차와 상용차 수출액이 두 자릿수 비율로 감소했다. 비록 자동차 부품·의약품·건설 중장비 부문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전체 총액의 감소를 막지 못했다. 라오스로부터의 수입품 역시 목재류, 커피류를 중심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원자재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제조업 분야는 극소 분야에 머무름에 따라 감소 추세를 보였다.

<표 2> 한국의 대 라오스 무역 현황

금액: 만 달러

연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7	9,200	2,700	6,500
2018	8,400	3,000	5,400
2019	4,200	2,000	2,200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대 라오스 투자 분야 역시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인다. 신규 법인 수는 2017년 6개에서 2019년 4개로 감소하였으며, 투자금액 역시 2017년 5,810만 달러에서 2019년 681만 달러로 감소하였다. 한국의 최대 분야인 전력 분야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기존 전력 사업이 마무리되어가는 것과 2018년 한국기업 관련 수력 댐 붕괴에 따라 신규 기업의 진출이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라오스가 주변 동남아 국가에 비해 인구가 적은 이유로 인해 저임금 노동

력을 활용한 제조업 진출이 어렵고, 소비시장의 협소함으로 서비스업 진출 역시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표 3> 한국의 대 라오스 투자 현황

단위: 만 달러

연도	신규 법인수	투자금액
2017	30	5,810
2018	23	3,726
2019	7	68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과 라오스 경제 분야는 지지부진한 상황이지만, 한국의 대 라오스 개발협력 분야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라오스 문화관광 분야에서 메콩 유역의 UNESCO 문화유산의 보존과 복원을 위한 공동사업으로 남부의 왓푸(Wat Phu) 지역이 선정되어 진행 중이다. 또한, 라오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직업 교육훈련, 고등교육 역량 강화, 이러닝(e-learning) 및 한국어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메콩 유역의 환경 보존과 관련해서는 라오스 비엔티안에 소재한 메콩강위원회(MRC: Mekong River Commission)와 MOU를 체결하여 수자원 관리를 협력하기로 했다. 이외에 라오스 내 지뢰폭발물제거와 관련하여 한국의 지뢰 제거 분야의 기술과 피해자 지원의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KOICA는 2차 인도차이나 전쟁 당시 매설된 지뢰와 불발탄을 제거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지뢰 제거·장애인 보호·농촌 소득증진·기후변화 등 4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메콩 평화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11/09).

한국과 라오스의 정부 부처 간 MOU 체결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019년 9월 5일 한국의 중소벤처기업부와 라오스의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는 스타트업 정책 전수 및 교류와 더불어 양측 간 중소기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MOU의 주요 내용으로는 스타트업/중소기업 생태계 조성 인프라, 정책 및 인적 개발을 위한 훈련, 네트워킹 장려 등이 포함되어있다. 이외에도 민간분야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전문가 교환·기술 전수·공동 연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중앙일보 2019/09/05).

해양수산부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에 11월 26일 ‘한-라오스 항만운영 정보화 시스템(Port-MI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개발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아세안 유일의 내륙국가인 라오스는 육상 물류수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메콩강을 이용한 하항(河港: River Port)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의 발전된 기술을 접목한 현대적 내륙수운(水運)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번 체결로 한국기업은 메콩 항만 개발을 선도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한국경제 2019/11/26). 이밖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라오스 전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라오스에 400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라오스 보건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와 한국의 민간기업인 KT와 공동으로 공공·민간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교육을 통한 질병관리·위험 평가·대응시스템 강화 등 보건 분야의 정보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IV. 나가며

라오스의 2019년 정치 분야의 안정성은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라오인민혁명당의 굳건한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2019년 발생한 오드 사야봉의 실종은

국제인권단체로부터 지속적인 비판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수의 활동가에 의해 지속되는 라오스 정부에 대한 저항은 라오스 정치의 잠재적인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 외교분야에 있어서 전통적 우방국인 베트남-캄보디아와의 메콩 삼각협력을 강화하면서도 러시아와의 군사훈련을 시작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특히 러시아는 비(非)접경국과의 첫 군사훈련으로 라오스가 앞으로 아세안을 벗어난 대외관계에 있어 지평을 넓히기 위한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와 인프라 분야는 라오스 정부의 최대 관심 사안이다. 2017년까지 7%대를 유지하던 경제성장률은 2018년 6%대로 감소하였고, 2019년에는 성장률이 더 부진했다. 따라서 라오스 정부가 성장 동력을 재건하기 위한 2020년 이후의 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라오스 정부는 수력발전 댐과 철도 프로젝트와 같은 대형인프라 건설로 라오스 경제성장을 견인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특정 국가(중국)와 특정 산업(수력발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형인프라 건설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환경파괴나 이주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현재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라오스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한국과 라오스의 관계는 2019년 두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한-메콩 정상회의를 매년 개최되는 ASEAN+3 정상회의 이후 별도로 정례화함에 따라 한국과 라오스 정상은 공식적인 소통 채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공식적 채널이 실질적인 양국 간의 협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한-메콩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정부는 물론 기업과 관련 학자가 광범위하게 협력 증진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실천해 갈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한-메콩 비전이 핵심 분야를 언급하고 있지만, 더욱 구체적인 제안을 통해 실행에 옮겨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메콩

협력기금(Mekong-ROK Cooperation Fund)'의 규모를 기존 100만 달러에서 2019년 200만 달러로, 2020년 300만 달러로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라오스를 비롯한 메콩 개별 국가의 어떤 분야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 제안과 방향성은 부족한 상황이다.

한-메콩 협력기금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메콩 지역에 투입되는 중국·일본의 막대한 자금에 비해서 양적으로 경쟁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만큼 한국의 비교 우위 산업과 라오스의 시급한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을 통해 이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대 메콩 계획에 있어 국가별 중점 분야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중국은 메콩의 국가별 협력 분야를 선정하여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도 국별 세부분야의 설정으로 라오스에 대한 우선순위나 전략 분야를 제시한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라오스와의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개발과 환경의 균형이다. 메콩강은 아마존강에 이어 세계 2위의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 국가·기업·국제기구의 시각은 개발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데 치우쳐 있다. 2019년 메콩강 수위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환경파괴로 인한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2018년 라오스에서 발생한 수력댐 붕괴로 인해 개발 위주 사업의 폐해와 부작용을 직접 경험한 바 있다. 따라서 개발과 경제 논리에만 편향된 협력보다는 메콩강의 생태계 관리와 보호, 개발로 인한 피해 비용의 공유 문제 등에 관해 관심을 두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 “문 대통령 ‘한-메콩 비전’ 발표. 평화와 번영 동반자 관계로.” 9월 5일.
- 아시아투데이. 2019. “문재인 대통령 ‘한-메콩 비전’ 선포. 한강의 기적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지길.” 9월 5일.
- 중앙일보. 2019. “아세안 순방 마친 문 대통령, 靑 4강 버금가는 신남방외교.” 9월 6일.
- 청와대 정책홍보담당관실. 2019. “한-메콩 비전 발표.” 9월 6일.
- 한국경제. 2019. “한·라오스 정상회담. 인프라 구축협력에 공감대,” 11월 26일.
-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019. “라오스: 2019 국별 진출전략.” *Global Market Report* 19-31.
- Asian Development Bank(ADB). 2020. *Asian Development Outlook 2020: What Drives Innovation in Asia?* Philippines: Manila.
- BBC. 2013. “Sombath Somphone: US Concern over Missing Laos Campaigner.” 1월 17일.
- Eleanor, Albert. 2019. “China Digs Deep in Landlocked Laos.” *The Diplomat*. 4월 24일
- Eugene, Whong. 2019. “While Locals in Laos Still Reel from Belt and Road, Presidents Offers Full Support.” *Radio Free Asia*. 4월 29일.
- High, Holly. 2020. “Laos in 2019: Climate Change Bites.” *Asian Survey* 60(1): 146~151.
- Hutt, David. 2019. “Laos Democrats Fight a Lonely Losing Struggle.” *Asia Times*. 11월 27일.

- Marimi, Kishimoto. 2017. "Laos Merely a by Stander as China Pushes Belt and Road Ambitions." *Nikkei Asian Review*. 10월 6일.
- New Straits Times. 2019. "Mekong Woes to Hit Millions." 12월 24일.
- Osborne, Milton. 2019. "Why We Should be Worried about the Mekong's Future: A Perspective on Forty Years of Great Change." *Perspective*. 19 December. Singapore: ISEAS.
- Peter, Janssen. 2017. "Land-locked Laos on Track for Controversial China Rail Link." *Nikkei Asian Review*. 6월 24일.
- Philip, Alston. 2019. "Statement by Professor Philip Alston,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Extreme Poverty and Human Rights on His Visit to Lao PDR." 3월 28일.
- Phouthonesy, Ekaphone. 2019. "Water Users urged to Prepare for Drought Conditions." *Vientiane Times*. 10월 25일.
- _____. 2019. "PM Optimistic about Sustainable Economic Growth." *Vientiane Times*. 11월 8일.
- Prashanth, Parameswaran. 2019. "What's in the New Russian Battle Tanks Deal for Laos." *The Diplomat*. 1월 3일.
- _____. 2019. "The Mekong Dimension of South Korea's New Southern Policy with ASEAN." *The Diplomat*. 9월 11일.
- Roseanne, Gerin. 2018. "Runoff from Railway Pollutes Nam Song." *Radio Free Asia*. 11월 14일.
- Reuter. 2019. "Lao Activist Latest Asylum-seeker to Go Missing in Thailand: Right Groups." 9월 6일.
- Shawn, Crispin. 2018. "China Train Project Runs Roughshod over Laos." *ASEAN Breaking News*. 8월 18일.
- Simes, Dimitri. 2019. "Russia Quietly Expands Military Ties with

- Laos.” *Nikkei Asian Review*. 12월 14일.
- Skylar, Lindsay. 2019. “China-Laos Railway Marred by Compensation Issues and Pollution.” *ASEAN Today*. 6월 11일.
- Surya, Chuen. 2019. “The China-built Railway Cutting through Laos.” *Chinadialogue*. 2월 8일.
- Souksavanh, Ounkeo. 2019. “Police Detain Eight Would-be Protesters in Lao Capital Vientiane.” *Radio Free Asia*. 11월 15일.
- The Guardian. 2019. “Thai Government Pressed over Missing Lao Activist Od Sayavong.” 9월 6일.
- The Nation. 2019. “Drought Destroying the Future of Lao Farmers.” *Asian News Network*. 7월 24일.
- The Thaiger. 2019. “Xayaburi Dam Owners Say They’re Not Responsible for Dry Mekong River.” 7월 28일.
- Vientiane Times. 2019. “Laos, S. Korea to Strengthen Close Ties.” 9월 6일.
- _____. 2019. “Mekong-ROK Leaders Praise Success of Cooperation Framework.” 11월 27일.
- Vietnam National Agency. 2019. “Laos Plans to Begin Work on Laos-Vietnam Railway in 2021.” 10월 17일.
- Vietnam Plus. 2019. “Vietnam, Laos, Cambodia Seek to Promote Development Triangle Efficiency.” 8월 18일.
- Xay Dung. 2019. “ROK President Reveals Vision on Cooperation with Mekong Nation.” 9월 9일.
- Xinhua. 2019. “China-Laos Railway’s 1st Bridge Span Completed over Mekong River.” 5월 21일.
- _____. 2019. “Cambodia, Laos Agree to Pull Back Troops from

Undemarcated Border Area.” 8월 24일.

Xuequan, Mu. 2019. “First Russian-Lao Joint Drills Start in Laos.”
Xinhua. 2019년 12월 10일.

Xuxin. 2019. “Laos to Expand Energy Trade with Vietnam.” *Xinhua*.
8월 22일.

Yinglun, Shi. 2019. “Lao Grid to Deliver Electricity to Cambodia.”
Asia & Pacific. 11월 11일.

Zhang, Jianhua, Huang Zongwen, Wang Shan. 2019. “China-Laos
Railway Brings up Lao Apprentice to Craftsmen.” *Xinhua*.
4월 2일.

(2020.04.02. 투고, 2020.04.08. 심사, 2020.05.04. 게재확정)

<Abstract>

Lao PDR 2019: From Land-locked to Land Linked Country in the Mekong Region

LEE Yo Ha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d the political, economic, and diplomatic changes in 2019 in Laos, considered as an academically marginalized region in Korea, and summarized the mutu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Laos. Although the change in domestic politics in Laos was minor, it dealt with the disappearance of anti-government personnel and the continuous resistance of minority activists. With regard to diplomatic relation, Laos has reinforced border cooperation with neighboring Mekong countries, and the significance of the first joint military training with Russia.

Laos was already a geopolitical center with 26% of the Mekong watershed and 35% of the Mekong watershed. However, the geopolitical value of Laos has increased as the Mekong cooperation has been officially formalized and the link has been strengthened as the GMS(Greater Mekong Subregion) project progressed. In particular, it was a year when the first and second dams of the mainstream, the Xayaburi Dam and the Don Sahong Dam, were completed and electricity production began to operate. Korea also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Laos in Mekong cooperation, and officially declared Korea-Mekong cooperation in September 2019 when President Moon Jae-in visited Laos.

Through the Mekong Summit in November 2019, th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Laos is expected to expand by upgrading th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Mekong. In Korea's process of promoting cooperation with Laos, the balance between development and the environment should be considered. The Mekong River has the world's second-largest ecosystem after the Amazon River, but the current perspective of governmental, corporate,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focused on obtaining economic benefits through development. In 2019, the Mekong River's water level is at a record low, and environmental damage is rising. Particularly, Korea once experienced the adverse effects and side effects of development-oriented projects due to the collapse of the hydropower dam in Laos in 2018. Therefore, it should focus on the efforts to manage and protect the Mekong River ecosystem and find a balance between the development logic and the cost sharing of environment.

Key Words: Laos, Xayaburi Dam, Don Sahong Dam, Hydropower, Economic Growth, Mekong-ROK Vision, Mekong-ROK Summit.